

북한산 관통터널 공사 중단과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과 시공사들이 '손떨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터널공사기간 외자출자를 맡은 일본 은행(UFJ, United Finance Japan)이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에 이달 말까지 공사 재개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월말까지 공사계속여부 통보 해달라” 외국계투자은행·시공사, 정부에 공문

“북한산 공사 포기...” “압박 아니냐”

외자유치 불투명 등 이유, 환경단체 “국면 전환용” 의심

또한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도 이달 말까지 정부의 공사 재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 급증 등으로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건설교통부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건설부 관계자에 따르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경우 올해 말이면 자기 자본 대

부분을 사용해 내년부터는 은행담보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공사 중단 및 사업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외국계 투자은행 또한 투자 유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UFJ는 아일랜드계 은행의 일본지

점을 포함, 일본·독일 및 벨기에 등 6개 은행들로 외화출자단을 구성, 북한산관통도로에 대한 외화대출을 준비중이다. 이를두고 불교환경단체들은 대정부 압박을 통해 공사재개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정부가 올해 12월 말까지 공문조사를 통해 노선을 결정짓겠다는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공사 재개를 노린 시공사 및 투자자들의 대정부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립공원 보존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무시한 채 경제논리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또한 비판받아야 한다”며 “내년이면 북한산 문제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교별 패럴림픽에서 법륜스님이 발제를 하고 있다.

“평화위해 종교인들 나서야”

17~18일 국제종교평화회의 열려

“대북 문제는 복잡하다. 어떤 사람은 북한을 도와주면 다시 총알이 떨어온다며 지원을 반대한다. 반면 난민들을 도와주면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북한이 싫어한다. 이런 경우 ‘생명’을 중심에 놓고 접근하면 문제가 분명해 진다.”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11

월 17~18일 서울 올림픽아 호텔에서 열린 국제종교평화회의 종교별 패럴림픽에서 이 같이 말하며 “사실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종교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스님은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핵보유를 문제 삼아 선제공격해서는 안된다 △북한 내 민중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북한 민중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등의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BPF(Buddhist Peace Fellowship)의장 로버트 라이온은 “현재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과 환경파괴 속에 있다”며 “이런 때 종교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로 평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북 추가 지원 즉시 강화 △북한 핵무기 개발 즉각 중단 및 IAEA 사찰 수용 △에너지 북한 공급 △재래식 무기 감축 △평화조약 체결 등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할머니! 장기자랑 예쁘게 봐주세요

숙불회,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1박2일

11월 15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작은 삶의 터전 나눔의 집. 창립38주년을 맞아 동문들만의 잔치인 창립제 대신 나눔의 집 방문을 선택한 숙명여대 불교학생회(이하 숙불회) 10여명의 학생들은 할머니들의 증언과 사진 및 그림자료들을 모아놓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자 창립제 대신 나눔의 집 방문을 택했습니다.” 숙불회 회원들은 이효정(01학년) 회장

의 말에 다시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들의 숙소로 발길을 돌렸다. “아여 와. 아여. 여기 좀 둘러봐 줘. 아파.” 박두리 할머니(81)의 투정(기)에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진다. 할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조소영·99학번) “할머니. 저희 장기자랑도 준비했어요. (웃음) 밀양아리랑하고 군밤따령이랑 몇 곡이요. 연습 많이 못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해요?” 전재현(03학번) 학생의 말에 한도

수 할머니(83)가 웃으며 말한다. “그럼 그럼. 뭘 해도 다 예뻐. 그런 걱정마.” 할머니들과 둘러앉아 고구마를 후후 불어가며 따뜻한 정을 쌓은 학생들, 할머니들의 잡자리를 본 뒤여야 법당에 모여 앉은 학생들은

주제명상과 108배 정진, 법우찬반, 발원문 작성 등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방문일정을 마무리 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법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하면서, 광주=김은경 기자



◇숙불회 학생들이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불교TV, 이번엔 인사문제 ‘시끌’

노조, 조재룡 방송본부장 임명에 이의

불교TV가 운영난에 이어 또다시 인사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는 내홍을 겪고 있다. 불교TV는 지난 11월 13일 조재룡(66) 씨를 방송본부장에 임명했다. 이에 노조 측은 17일 “현 본부장은 정관상 정년 나이를 넘겨 정규직 입사가 불가능해 계약직으로 입사했

다”며 “이는 사전에 공개채용이나 인사위원회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은 끼워 맞추기식 인사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조 본부장은 영풍건설, 영풍산업 등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현재 회사에 필요한 경영능력을 갖춘 검증된 인물”이라며 “정규직이 아

닌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도 정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TV의 정관 33조에는 방 송본부장이 해당하는 일반직 1급 이상의 직원일 경우 만 61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다. 한상희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신원,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선 나눔 콜택시 1588-5532

소외된 이웃위한 김장보시 ‘훈훈’

불교계 복지관들

불교계 복지시설들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역 내 무의탁 노인 과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노숙자 등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담고 이를 나누주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구자훈)은 11월 27~28일 자원봉사자와 군정병들이 함께한 가운데 ‘김장김치 담그기 축제’를 연다. (02)804-4058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적산)은 12월 4~5일 김장담기 행사를 마련 한다. (02)852-0525 수유종합사회

복지관(관장 수혜)도 12월 초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라는 김장담기 행사를 갖는다. (02)903-6940 이번 김장담기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11월 26~27일 열리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 ‘무의탁아르신 김장나누기’ 행사에는 주부, 군장병, LG 화재, 벽산ENG 등의 자원봉사단이 참여해 한파를 녹이는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 (02)385-1351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이 12월 5일 마련하는 김장담기 행사에도 CJ홀쇼링 자원봉사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02)466-6242 이명혁 기자

첫 국제불교영화제 열려

제1회 국제불교영화제가(1st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로스앤젤레스 시립 예술 박물관(LACMA)에서 열렸다. 총 8편의 개봉작이 선보인 이번 영화제는 부단 최초의 장편영화 ‘여행자와 마법사(Travelers & Magicians)’로 시작해 23일 독일 베를린 헤르조그 감독의 ‘시간의 굴레(Wheel of the Time)’로 막을 내렸다. 한국영화로는 유일하게 ‘달마야 놀자(Hi! Dharmal)’가 영화제 둘째 날인 21일 상영됐다. 한상희 기자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에

김영이 작 ‘수월관세음보살수불’



◇김영이 씨의 ‘수월관세음보살수불’.

제28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에 홍석현씨의 ‘사인검’이, 국무총리상에 김영이 씨의 ‘수월관세음보살수불(사진)’이 선정됐다. 한국무형문화재 가능보존회에서는 11월20일 수상자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송인정 씨의 ‘관음42수주병풍’과 이연옥 씨의 ‘아미타삼천불합공보살도’도, 이정 아 씨의 ‘천계’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조병현 씨의 ‘불감’, 최현규

씨의 ‘15할 발우’, 김미숙 씨의 ‘금니 수월관음도’, 유상선 씨의 ‘수월관음도’ 등이 입선하는 등 불교소재 작품 다수가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3시에 서울 삼성동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은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02)3453-1685 김주일기자

2004년을 준비하는 불자들의 현명한 선택... 불자들의 필수품 2004년 불교 다이어리북 출시!! 2004년 불교 다이어리북 색상: 곤색, 자주, 외색 단채형 고급인쇄 - 100부 이상 가격: 각권 7,000원

참선은 아무나 하나 禪 참선 교육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본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재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법부선-참선과 인과 법, 의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채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제 상식), 참선할때 마음가짐, 참선에 있어 할 일, 참선할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 왜 한철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토공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토공생활 하는 법) 선사와의 백문백답(진제선사와 백문백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선택과 폐해, 화두 생각 망상, 선어록(禪語錄), 禪법론 의식, 법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지, 정념즉지, 인제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곤인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리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련법을 제시한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또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거란 무엇인가?, 도에 접근이 어려운 것인가?, 또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평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법,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본 주파수, 편인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염불수행, 왜 경건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집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배한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단선사와 백문백답, 정일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명정선사와의 백문백답]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종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조~28조, 중국사 28조~56조, 한국사 57조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철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우편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각권 1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성동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